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교계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심마니(simmany)에 따르면 300여 개의 불교 사이트들이 오픈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불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또 타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열



인터넷시대 착각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공자(사이트)는 '다양'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자(네티즌)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물코처럼 연결해 유용한 정보로 가공·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디지털을 다루는 능력'을 뜻하는 '디제리시(digercy)'라는 말을 한번쯤 생각해 볼 시점인 셈이다. 디제리시는 'digital(디지털)'과 'literacy(읽고 쓸 줄 알)'을 합성한 신조어다. 지난해 4월 개설한 '불교교양강좌(study.bud.buddhism.org)'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이지만, 불교문화·교리·수행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10개월만에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불자 네티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교계 최대 중단인 조계종이 개설한 달마넷(www.dharmanet.net)의 경우, 12개월간 5만여 명이 방문했다. '불교교양강좌'의 운영자인 이재은 씨는 "디지털화 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그것을 찾는 네티즌의 관심사는 오직 '알찬 정보'일 수밖에 없다"며 "21세기에는 정보를 선별하고,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축적이 중요했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사이트를 방문해 정보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이들 정보를 엮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콘텐츠)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는 사람이,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이들 내용을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남북 문화교류 선도-상생의 가치관 구축 "통일시대 불교역할 찾자"

조계종 등 "남북 정상회담 환영"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라 남북불교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교계의 남북교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불교계에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은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걱정도 큰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라며 "남북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 재역할을 다할 때 상생을 이룰 수 있다"는 화합의 가르침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김기현은 "통일시대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가장 뿌리깊은 종교이며, 민족의 중심성을 확인시켜주는 기반"이라며 "그동안 통일운동에 기여하지 못했던 참을 반성하고 불교계의 의지와 인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장 중단을 단행한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사안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협의기구 설립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에 종교 및 전통문화, 문화교류와 관련된

사업종의 하나로 북한불교와의 교류를 정하고 우선 북한불교도 돕기 및 대북포교기금 1억5백만원을 모금하기로 했다. 천태종은 조불련의 영동사 복원 지원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각종은 5월 23~30일 북한을 방문, 컴퓨터 직업학교 개



위없는 가르침 받들어... "위없는 가르침을 받들어 모든 중생들이 화엄의 세계로 기기를 서원합니다." 14일 40만명을 맞은 해인사 정대(頂戴)행사에 동참한 4천여 불자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화엄일승법계도를 따라 들고 있다. 이윤호 기자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

조계종, 국무총리실·문화부·문화재청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비지정 문화재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4일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 정식 요청했다. 지금까지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은 불교 문화재 전체 도난 건수의 94.8%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이 느슨해 도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조계종이 개정 요청한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 문화재와 같이 범죄처벌을 정하고, 도난을 사유로 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고, 지정 및 일반동산 문화재를 절취하여 은닉한 경우 은닉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현재 2명

으로 구성된 문화재청의 사법단속반을 확대하고, 검찰 내 문화재사법 전담반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한편,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지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또 전통사찰 주변 건축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20일 조계종 종현특위

민족화합불교추진위 '존속'

통일교육캠페인 중점

조계종의 대북포교기구 산실로 존재 위기에 놓였던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불추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불추위는 7일 조계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확대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진각종과 태고종 등 북한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단과 북한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추위는 또 기존의 대북 지원사업이 각 종단별로 활성화될

수도권 신도시 '교회 준비'

종교시설 91.6%가 교회...사찰 5.1%뿐

분당 일산 중동 광훈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교회·성당이 사찰보다 무려 20배 이상 많이 신도시 포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종교시설은 780개(도교 2개 이상, 신도시 입주 직전인 지난 90년대 30배 이상 증가)로, 지역별로는 전세 780개 종교시설 중 기독교가 715개(9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교 40개(5.1%), 천주교 15개(1.9%), 기타 10개(1.3%)순. 사찰 및 포교당이 교회 숫자의 18분의 1에 불과한 실정에서 신도시 포교에 경종이 울리

하지만 종교시설간의 지나친 교세확장과 신도확보 경쟁

비판 일대로서 인한 자급난 등을 겪지 못하고 문을 닫는 종교시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유지호 포교과장은 "각 교단들이 갈수록 신도시 포교에 역점을 두는 것 같다"며 "신도시 종교시설들은 대부분 가까운 근린상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포교당 중심의 새로운 신도시 포교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천년태양 여의주 읍에물고
 장엄한 아침籠이
 거룩하게 솟아올라
 대우주를 토해 내니

玉龍子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 제 5회 민족평화통일·불교 중흥기원 불교문화제전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제5회 대경상도 작품전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대경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 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 스님 대경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정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나무심을 봉축하는 대경상도전을 봉행함에 있어 무려 10여m에 이르는 대작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법회 : 2000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 작품전 : 2000년 4월 26일(수) 오후 12시 ~ 4월30일(일) 오후 6시(5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특별대강좌 마련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 불자연예인 공연 : 불자연예인단의 특별공연
 ※ 참석하신 불자님께 대경상도 호신품 목걸이, 교방연진호신품, 기념법서, 기념법주, 공부하는 자녀를 위한 김상도 용품, 비디오 법문테이프를 증정하여 드립니다.

※ 장소 : 잠실 호텔롯데월드 3층 특별대법회장, 전시관
 ※ 서울소림불교아카데미 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511-6210-5 3443-9871-7 FAX:511-6216